

입시결과로 보는 2027 수시 전략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 전년도 입시 결과 활용의 한계와 보수적 관점의 필요성

대입 수시 모집에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지표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의 대학별 입시 결과다. 2026학년도 수시 결과에 따르면 인서울 주요 44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및 종합전형 합격자 70% 컷 성적은 정원 조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전년도 등급 수치만을 절대적 기준 삼아 지원하는 방식은 불합격 위험을 높인다. 입결은 제도적 변수와 수험생 지원 심리에 따라 변동하는 가변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2027학년도 수시 입시는 합격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거나 매우 촘촘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수적인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 2026학년도 입시 지형을 흔든 3대 거시적 핵심 변수

2026 입시 지형을 흔든 가장 큰 거시적 변수는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변화였다. 최상위권 의대 정원 확대는 메디컬 라인의 합격선 이동을 일으켰으나 인서울 중상위권 대학 교과전형에서

는 재학생들의 수시 몰림 현상으로 이어져 합격선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이중화 현상을 보였다. 또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전공자율 선택제(무전공)로 대규모 선발함에 따라 기존 주요 학과들의 모집정원이 대폭 감축됐다. 정원이 축소된 학과들은 합격선이 전년 대비 일제히 상승하는 압박을 받았다. 아울러 자연계열 수능 최저 지정 영역 폐지로 인한 시탐런 현상은 최저 충족 비율을 이끌어 올려 주요 대학 교과전형의 합격선을 밀어 올렸다.

◆ 합격선 요동을 결정짓는 미시적 구조 변수와 N수생 영향

개별 모집단위의 미시적 구조 변수 역시 합격선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소형 학과의 정원 1~2명 감축은 커트라인 폭등으로 이어졌으며, 전년도 합격선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학과로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역풍 현상은 당해 연도 입결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했다. 충원율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경영, 전자공학 등 중목 합격이 많은 학과는 충원율이 높아 합격선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충원율이 낮은 학과는 아주 작은 점수 차이로도 합격 여부가 갈렸다. 여기에 정시 모집에서 N수생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고3 재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안정 지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고, 이는 인서울 합격선을 밀

바닥부터 밀어 올린 원동력이 됐다.

◆ '어디가' 입결 데이터의 다각적 해석과 착시 제거

공개된 '어디가' 입결 데이터를 해석할 때에는 전형별 특성에 맞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표면적 등급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점수식과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반영 방식에 따른 내신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동일 등급이라도 대학별 환산 방식에 따라 실제 점수 우열이 바뀌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70% 컷 수치는 착시 현상을 가장 주의해야 한다.

◆ 2027학년도 수시 승리를 위한 위험 분산 원서 작성법

2027 수시 대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위험 분산 원칙에 따라 수시 6회 지원 카드를 배분해야 한다. 수시 카드는 수능 최저가 높거나 서류 경쟁력이 명확한 모집단위 위주의 상향-소신 카드 1,2장, 최근 3개년 입결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며 모집인원 변동이 적은 적정 카드 2~3장, 수능 최저 미충족 시에도 합격이 보장되는 전형 및 충원율이 높은 대형 모집단 위주의 안정 카드 1~2장으로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입 결과는 다각도의 변수가 만들어낸 복합적 산물인 만큼 변수를 교차 검증해 보수적인 원서 조합을 완성해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환율 착시가 가린 백화점 '사상 최대'의 경고



김 서 현
(유통&라이프부)

국내 주요 백화점 3사가 올 상반기 사상 최대 외국인 매출을 올려 연간 외국인 매출 '1조 원 고지'를 눈앞에 뒀다. 내수 소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외국인 매출은 가뭄 속 단비이자 실적 방어에 일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명확한 한계와 경고 신호가 읽힌다. 지금의 폭발적인 외국인 매출 성장이 과연 백화점 고유의 본질적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외부적 환경 변수에 기댄 '환율 착시'인가라는 질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1달러당 1527원까지 치솟았고, 이달 5일 기준 1450원 선을 오가며 급박한 원화약세 흐름을 이어가

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명품과 K-패션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쇼핑 환경이 마련됐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국가별 가격 차이를 제한하는 정책을 쓰는 와중에, 환율이 급등하자 달러 기반의 면세점은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그 반사이익은 고스란히 백화점으로 쏠렸다.

결국 지금의 외국인 매출 급증은 국내 백화점 공간이 지난 매혹이라기보다, 고환율이라는 일시적 경제 조건이 만들어낸 '가격 착시'의 성격이 짙다. 환율 흐름이 급변하거나 글로벌 경기 변동으로 환율 메리트가 사라지는 순간, 이 모래성 같은 매출 역시 한순간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고환율 호재에 기댄 실적 잔치에 삼매인을 터뜨릴 수만은 없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격 해택'을 찾아왔다가 환율 따라 떠

나는 쇼핑객이 아니라, 공간과 브랜드 자체에 매료되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팬덤이다. 환율이라는 외부 변수가 사라져도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이 공간을 찾을 명분을 만들어내야 한다.

결국 답은 '공간의 혁신'과 '차별화된 경험의 제공'에 있다. 단순한 브랜드 매장의 나열과 결제 편의성 향상 수준을 넘어, 오직 한국의 백화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단독 콘텐츠와 K-컬처 체험, 미식과 예술이 조화된 랜드마크 공간으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정의해야 한다.

환율이 안겨준 뜻밖의 호재는 백화점 업계에 혁신의 골든타임을 벌여준 것일 뿐이다. 착시가 걷혔을 때 드러날 진짜 실력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사상 최대 매출'은 내일의 가장 큰 경고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seo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 (음 6월 24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60년생 여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72년생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84년생 운전할 때 과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49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61년생 오늘은 특히 입조심하세요. 73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85년생 정주지 마세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입니다.



50년생 곧 나아지니 무리하지 말고 휴식하세요. 62년생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74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86년생 오랜 친구에게 뜻밖의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1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됩니다. 63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75년생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7년생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52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64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76년생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쫓으니 그 결과가 가히 창대 할것입니다. 88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53년생 안좋은 관계의 사람과 빠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65년생 노력한 만큼 얻을것입니다. 77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89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5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66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 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78년생 남쪽이 길방입니다. 90년생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된 행동은 삼가해야겠습니다.



55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67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9년생 벌리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날수 있습니다. 91년생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6년생 자분이 감소합니다. 68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입니다. 80년생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어렵거나 잘 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57년생 맘을 흘리면 매우 좋습니다. 69년생 건강에 유의하세요. 81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3년생 까치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58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0년생 이익이 같이 들어오니 도처에서 불바람이 불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중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59년생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습니다. 71년생 원하던 소원을 풀 수 있겠습니다. 83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95년생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것은 무방합니다.



김상회의四季 천지 지혜

지혜로운 여성의 대명사는 누구일까? 서양의 역사에 경도된 세계사에서 사실 가장 많이 회자하는 여성은 어찌 보면 제국주의 이후 근대 세계사를 이끌어온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아슬라 사막 지역의 여성 세헤라자드이다. 지혜라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여인이 바로 세헤라자드, 그 유명한 아라비안나이트의 주인공 아날까. 필자는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사회에서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시대환경 속에서도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지혜 가득한 여성들을 볼 때마다 같은 여자로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많은 지혜 총명한 여성들이 있지만, 필자는 항상 섣덕여왕이 우선으로 떠오른다. 게다가 그녀는 왕의 여인도 아닌 여왕이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 여왕이기도 했으며 그녀의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모란고사' (牡丹古事)를 비롯한 여러 예에서 알 수 있다. 당시 당나라 태종은 사신을 통해 신라에 모란꽃 그림과 모란 씨앗 석 되를 보내왔는데, 이때는 아직 섣덕여왕이 되기 전 진평왕의 딸로서 공주신분이었다. 이때 공주였던 덕만은 이 꽃에는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림에 모란은 꽃은 탐스럽고 아름다웠으나 별과 나비가 보이지 않으니 분명 향기가 없을 것이다. 덕만공주의 말처럼 보내온 씨앗을 뿌려 꽃이 피기를 기다리니, 역시 꽃은 탐스럽고 화려했으나 꽃과 나비는 피어들지 않았으니 그림을 보고 통찰한 그녀의 지혜가 만천하에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지혜 담긴 통찰이 어디 이 하나에 국한했으리. 당시 신라는 삼국 중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신라 귀족 중에서는 여성 왕의 출현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2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15.3판권

컬러 스도쿠 110

종이 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6	3	1	8	9
9	8	6	1	9	2
9	7	9	2	8	6
6	2	9	2	9	1
1	8	6	7	6	2
7	9	2	8	9	2
8	2	9	8	7	6
2	1	6	9	8	2
8	9	7	1	2	9

7	2	8	1	9	8	6	9
9	8	8	2	7	6	2	9
1	6	9	2	8	9	2	8
8	1	9	7	8	2	6	2
8	9	7	6	9	2	1	8
2	2	6	8	9	1	7	9
2	7	1	9	6	8	9	2
9	8	2	9	2	7	8	1
6	9	8	1	2	8	9	7